

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

검 토 보 고 서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# 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23년 7월 4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7월 5일

3. 제안이유

- 도내 유망 창업기업 육성 및 기업 성장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2개 펀드 출자에 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출자 목적
  - 창의적 아이디어 및 성장 가능성 있는 도내 창업기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기여
- 출자 근거
  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
  -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 (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)

-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 
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, 제6조(기금의 지원 대상자)

○ 출자 내역 :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펀드 출자

- ①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
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, 알파브라더스(공동운용사)
  - 유한책임조합원 : 충청북도
  - 존속기간 : 2023년 ~ 2031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
  - 펀드규모 : 41억원(충청북도 40, 운용사 1)
  - 투자대상 : 충청도내 7년 이내 창업 기업
  - 투자 의무 : 펀드 조성액의 100% 충북 도내기업 투자  
펀드 조성액의 60% 이상 3년 이내 초기기업 투자  
펀드 조성액의 60% 이상 1억 미만 투자
- ②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
- 업무집행조합원(운용사) : 한국벤처투자
  - 유한책임조합원 : 한국모태펀드, 충북, 전북, 세종
  - 존속기간 : 2023년 ~ 2031년(8년) ※ 투자기간 4년
  - 펀드규모 : 225억원  
· 모태펀드(중기부) 200, 충북10, 전북10, 세종5
  - 투자대상 : 초기 창업기업, 연매출 30억 미만 벤처기업 등
  - 투자 의무 : 비수도권 지역에 조성액의 60% 이상 투자  
중점투자지역에 조성액의 40% 이상 지역투자

○ 기대 효과

-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‘투자  
⇨ 기업성장 ⇨ 자금회수 ⇨ 재투자’의 선순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, 유망기업이 안정적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
-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생태계를 극복·개선하고, 충북 고유의 창업생태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## 5. 검토의견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민복기)

### 가. 충북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2023년 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41	100
LP(출자자)	충청북도	40	97.5
GP(공동 운용사)	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알파브라더스	1	2.5

※ 펀드조성 일정 및 출자자 상황에 따라 연도별 출자액 변동 가능

#### ○ 추진경과

- 펀드 조성 계획 수립 : '23. 4. 28.
- 펀드 사업 공고 : '23. 5. 1. ~ 22.
- 1차 서류 평가 : '23. 5. 30.  
※ 펀드 운용사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(외부 전문가 5명)
- 2차 발표 평가 : '23. 6. 13.
- 펀드 운용사 최종 선정 보고 : '23. 6. 14.

○ 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 펀드는 충청도 출자액 40억원에 운용사의 출자액 1억원을 합하여 총규모는 41억원으로 운영되며, 3년 이내 초기창업 기업에 60% 이상을 투자하고, 조성 금액의 60% 이상은 1억원 이하의 초기 단계에 투입할 계획으로,

○ 조성금액을 100% 충북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도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.

- 또한, 펀드의 공동 운용사인 **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**는 충청북도에 소재를 둔 창업기획자로 우리 지역 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충족되며, 지역의 대표적인 창업지원 기관으로서 기업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까지 지원할 수 있으므로, 펀드를 운용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사료됨.

나. 지역엔젤투자 재간접 펀드

(단위 : 억원, %)

출자자		2023년 출자액	출자비율
합 계		225	100
LP(출자자)	충청북도	10	4.5
	전라북도	10	4.5
	세종시	5	2.2
GP(운용사)	한국벤처투자	200	88.8

※ 펀드조성 일정 및 출자자 상황에 따라 연도별 출자액 변동 가능

- 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는 한국모태펀드에서 200억원, 지자체에서 25억원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총 225억원의 규모로 운용될 계획이며, 비수도권 지역에 60% 이상, 중점투자지역에 40%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요건으로 조성되었고, 수도권-비수도권 간의 투자불균형을 해소하고, 지역의 엔젤투자\*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임.

\* 기업을 창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사같은 투자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.

- 한국모태펀드는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에 근거하여 투자재원을 정부에서 공급하고, 투자의사결정은 한국벤처투자(주)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, 펀드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, 특별한 이견 없음.

## 다. 종합의견

### 【 펀드별 출자약정 내역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모태펀드 (국비)	도비	기타
계	266	200	50	16
충북 창업 노마드 혁신펀드	41	-	40	1
지역엔젤투자 재간접펀드	225	200	10	15

- 「충청북도 펀드 출자 계획안」은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을 위해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제4항제1호 및 「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제1항제14호 등의 법률 및 절차적 요건을 충족함.
- 최근 고물가·고금리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이 감소하고 금융권의 위험관리가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스타트업이 죽음의 계곡(Death Valley)<sup>1)</sup>을 넘지 못한 채 생존의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음.

1) 스타트업 기업이 연구개발을 성공한 후에도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위기를 겪는 시기. 통상적으로 창업 후 3년 전후로 발생함.

- 본 계획안은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유망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마중물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, 도내에 유망기업을 유치하고,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판단되며,
- 공공분야의 선제적 펀드 조성을 통하여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와 육성을 지원하며, 충북의 새로운 경제발전 동력을 발굴하고,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안이라고 사료됨.
- 다만, 본 출자 계획안은 민선 8기 핵심공약인 ‘충북창업펀드 1000억원 조성’의 시발점이 될 출자 계획이므로, 향후 투자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투자금 회수전략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으며,
- 장기적으로는 공익성(기업성장 지원)과 수익성(적정 수익률)이 조화를 이루고, 도비 외에 정부출자기관(모태펀드 등)과 민간출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요구됨.